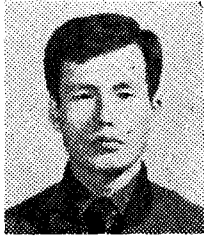


10월의 사양관리포인트



김 성 호
(진 흥 사 료 영 업 부 장)

1. 기 상

	일 조 시 간		평균기온
	10월 1일	10월 31일	
서 울	11시간 48분	10시간 38분	13.4°C
대 구	11 " 50 "	10 " 44 "	14.2 "
광 주	11 " 51 "	10 " 46 "	14.0 "
부 산	11 " 50 "	10 " 47 "	16.6 "
제 주	11 " 51 "	10 " 51 "	16.8 "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10월중 각 지방의 일조시간은 매일 약 2분간씩 짧아지므로 산란계의 경우 점등관리를 철저히 하고 점등시간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또 평균기온은 닭의 생리에 가장 알맞는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기온이 좋다고 자칫하면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우니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닭을 보살피 주어야겠다.

2. 육계 및 육성추의 관리 포인트

(1) 육성율을 높이자

최근 육추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육성율의 저하라고 할 수 있다. 산란계의 경우 60~70%의 육성율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다. 이런 저조한 육성율의 원인은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대개 밀사와 연속육추에 의한 질병의 피해 및 방식으로 인한 의외의 순간적인 실수

(압사및 개, 돼지 등 타동물에 의한 피해)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좋은 육성성적을 내자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겠다.

① 격리육추를 할 것

육추사는 반드시 성계사와 격리하고 관리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 병원체의 침입경로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된다.

② 육추회수를 제한할 것

전회(前回)수용계의 병원체가 사멸하기 전에 입추를 하게 되면 즉시 오염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한 육성율을 향상시킬 수가 없으므로 육추가 끝나면 즉시 수세, 청소, 소독을 하여 산란추의 경우 최소한 3개월이상 계사를 비워둔 후에 입추를 하도록 육추계획을 세워야한다.

③ 환기를 잘 할 것

환기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유추 초기(입추 1~2주 이내)를 제외하고는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와 통풍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④ 소독을 철저히 할 것

병아리 구입은 위생적으로 우량한 병아리를 판매하는 신용있는 부화장에서 구입하고 주위 시설을 철저히 소독하여 입추하고 육추 및 육성기간중에 질병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주 소독해야 된다.

⑤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것

병아리를 아무리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 하여도 무균계준으로 사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문에 전염하기 쉬운 중요한 질병에 대한 예방법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백신이 개발된 마릭크 병, 뉴캐슬병, 제두 등에 대한 접종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고 만일 질병에 감염되어 오염된 시설일 경우 다음 육추시까지 최소한 4개월이상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소독을 하여 계사를 청정화한 후에 다시 육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육추 관리상의 문제점

① 유추기

병아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건(온도, 습도, 환기)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잠을 잘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악습(카니발리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고 디비킹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각종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야겠다. 사료의 교체(전기→후기, 초생추→중추사료)를 적기에 하도록 유의해야 된다.

② 중추기

건강계를 만들도록 위생적인 관리를하고 밀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환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고 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야된다.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일령이므로 병아리를 잘 관찰하여 불량추는 즉시 도태하도록하고 예방제를 적기에 투여해야 된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가장 좋은 조건임을 명심하고 과잉보호가 되지 않도록 해야된다. 산란계의 경우 각 품종에 맞도록 반드시 제한급사를 하도록 하고 90일령 전후에 대추사료로 교체하도록 하자.

③ 대추기

환기에 특히 유의하고 최소한 초산 1개월 전에 성계사에 편입시켜야 된다. 성계사가 평사일 경우 닭사이의 생존경쟁이 치열하므로 급이기, 급수기, 산란상 등을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넣어 주어야 한다. 마릭크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군은 이 시기에 폐계가 많이 나오므로 발병계는 미련없이 즉시 도태해야

된다. 120일령 전후부터 배합사료에 패분을 별도로 보충해서 주도록 하고 초산 5% 전후에 산란사료로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초산시 특히 산란피크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종 예방접종을 전부 끝마치도록 계획을 세워야겠다.

※ 카니발리즘과 디비킹

① 악벽(카니발리즘)과 그 원인

닭의 카니발리즘은 궁둥이 쪼는 버릇, 털을 쪼아 먹는 버릇, 계란을 먹는 버릇 등이 있으나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은 궁둥이를 쪼는 버릇이라고 할 수 있다. 카니발리즘의 발생 원인은 유전으로 품종이나 계통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계절적으로는 가을 겨울보다도 봄, 여름에 많이 발생하며, 사양방식에서 보면 평사보다 케이지 사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위생적인 면에서는 내외기생충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하게되며, 환경관리에서는 고온일 때, 환기가 불량할 때, 너무 밝을 때, 습도가 높을 때 밀사, 급이기, 급수기 등이 부족할 때, 두가지 이상의 품종이 섞여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 영양적인 면으로는 섬유질의 부족, 단백질 부족, 식염 부족,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되며 한마리가 악습이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닭들도 배워서 전파하게된다.

② 카니발리즘의 방지대책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여러가지 발생원인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나 일단 발생하면 사내를 어렵게 해주고, 환기를 잘 시켜야 되며, 밀사가 되지 않도록 넓혀 주고, 사내 온도를 내려주고, 물 1바켓스(10l)에 식염 50g을 타서 급수해주고 동시에 종합영양제를 타주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피해계는 콜탈 등으로 발라주어 다시 쪼이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리를 짜르는 것이 가장 좋다.

③ 디비킹(부리짜르기)의 방법

부리짜르는 방법은 상하부리를 같이 짜르는 법과 상측을 짧게 하측을 길게 절단하는 법이 있으나 후자의 효과가 더 좋으며 부리짜르는 부위는 상측을 부리끝에서 $\frac{1}{2} \sim \frac{2}{3}$ 정도, 하측

협성가축약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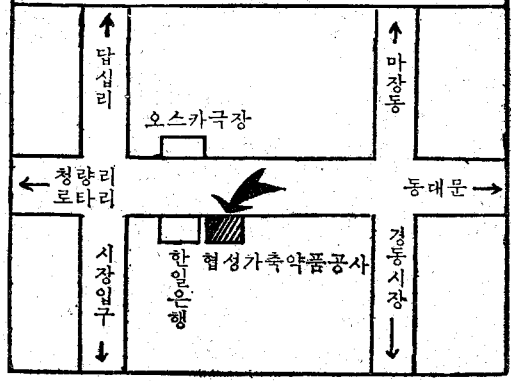
- ◎ 가 축 예 방 약
- ◎ 치 료 제
- ◎ 소 독 약
- ◎ 사 료 첨 가 제
- ◎ 기타국내외약품

총판

상담수의사: 연 두 회
 ★ 가축질병상담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7-8779
 야간 96-92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을 1/4정도 되는 곳을 절단하는 것이 좋으며 부리를 찌른후 출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디비킹후 아물때까지 스트레스를 최소화으로 줄여야되며 사료와 물은 충분히 공급함.

④ 디비킹의 시기

디비킹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8주령이전에 절단하면 재생력이 강해서 닭에 따라서 한번 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생주에 실시할 경우에는 1/2정도 찌르지 않고는 효과가 없으며 10주령에 다시 재조정 해 주어야한다. 이론적으로는 8~10주령에 디비킹하는 것이 좋으나 그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20일령~1개월령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⑤ 디비킹의 이점

1. 실시방법이 간단하고 경비가 적게 든다.
2. 투쟁에 의한 상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신경과민계군으로 육성할수 있다.
4. 식란벽(食卵癖) 과파란벽(破卵癖)을 줄임
5. 사료효율이 좋아진다.
6. 우열순위가 완화되고 닭을 고르게 키움
7. 평당 수용수수를 늘일 수 있다.
8. 관리(특히 집란시)를 쉽게 할 수 있다.

3. 산란계의 관리 포인트

① 봄추가 초산을 시작하는 달이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초산계가 있으면 빨리 실시해야 된다. 작년 가을추 이전의 닭은 대부분 환우를 시작하게 되므로 접종시간을 절대로 줄이지 말고 수용성비타민제를 공급

② 가을은 과산계가 휴산환우하는 계절이므로 계군의 능력을 조사하여 성적이 나쁜 닭은 도태하여 고능력계(고산란계)만으로 계군을 재편성해야 겠다.

③ 하순부터 야간에는 온도가 낮아진다. 닭은 생리적으로 추위에는 잘 견디므로 갑자기 문을 닫아 환기불량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 추위에 대한 방한대책은 창문 닫는 법부터 서서히 진행토록 해야한다.